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 방안: 부산광역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이 정 석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와 일본 자매도시를 사례로 하여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활성화를 염두에 둔 문화교류 추진,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한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투자, 주민참가의 적극적인 유도 및 지원, 국제문화교류로 발생하는 성과(이익)의 시민 환원, 상호 호혜주의 원칙 준수, 지역마케팅 원칙 확립 등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여섯 가지의 기본전제들을 감안하면서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전략을 강구해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일본 자매도시의 현실을 감안한 문화교류의 방향 설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의 발전 강화, (가칭)「평화교류 카드」의 활성화, 주민참가 확대를 위한 문화교류 행사의 홍보 강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확인 및 마인드 제고,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문화교류, 지역활성화, 연계 방안, 부산광역시, 자매도시

I. 서론

도시 간 자매결연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추구할 목적으로 2개의 도시가 교류협력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타이완의 가오슝(高雄市)(1966)을 시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1967), 일본 시모노세키시(下関市)(1976) 등의 순으로 자매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5년 12월 말 현재 26개 도시(23개 국가)로 확대해 오고 있다(미국·일본·러시아는 각각 2개)(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자매결연을 통한 지자체 간 국제교류는 2004년에 정부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된 이후 꾸준히

* 이 논문은 부산발전연구원(BDI)에서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공동연구과제로 수행했던 연구(이정석, 2014)를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연구발표회와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함으로써 수정·보완하여 완성한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증대되어 왔다.¹⁾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의 핵심(이정석, 2009; 2012)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매결연협정 체결 이후 행정교류 혹은 인적교류(공무원 상호 파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거나, 투자설명회·지역물산전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다거나, 혹은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방적인 교류 추진으로 계획성·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은데, 국제교류의 양적 팽창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성과를 지역활성화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실적을 근거로 하여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 간의 국제교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교류가 25건(32.1%)으로 최다며, 문화예술교류 12건(15.4%), 경제교류 9건(11.5%) 등의 순이다.²⁾ 둘째, 자매도시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교류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상호친선에서 실리추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셋째, 행정교류 개시 이후 교류 분야가 그대로 정체중인 교류대상단체가 7개나 된다.

자매도시 간 교류에서 행정교류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제교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류로 변질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류 분야를 다양화하고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교류가 지자체 상호 간에 경제적인 측면의 가시적인 성과나 지역발전 내지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 실적에 있어서 행정교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교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의 관심이면서 연구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상대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것은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실리추구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의 추이에 순응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교류나 스포츠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문화교류는 상호이해 증진 내지 친선 교린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자매도시 간의 ‘공동발전’이나 ‘지역활성화’에 연계되도록 운영되어 왔는지를 점

1) 2014년 현재 우리나라 244개(광역시 17개, 기초 227개) 지자체 중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곳은 총 192개(광역시 16개, 기초 176개)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세계 52개국 610개 도시와 641건의 자매도시 결연을 하였다. 한편, 1961~2004년까지 44년 간 체결된 자매결연 실적은 총 451건으로 평균 10.25건/년인 반면, 2005~2013년까지의 실적은 20.2건/년으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2) 부산광역시의 자매결연 실적 26건을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교류 횟수는 많더라도 동일한 분야일 경우 1건으로 계산)(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와 「뉴시스」(2013)를 참고하여 작성).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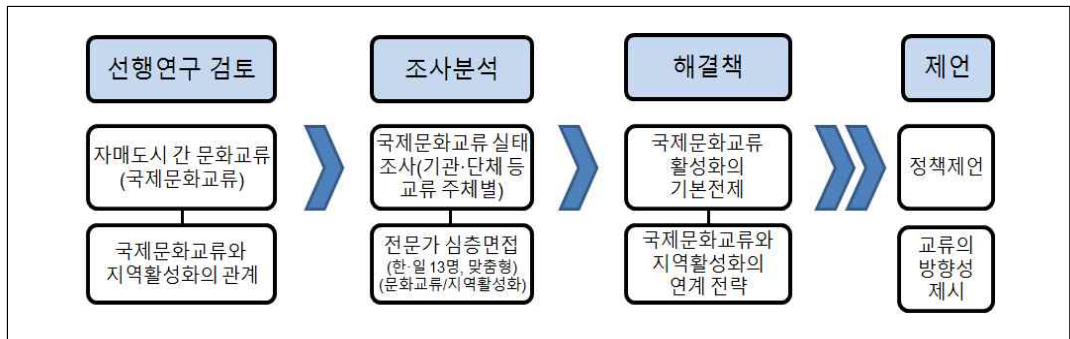
합계	행정교류	문화예술교류	경제교류	스포츠교류	청소년교류	인적교류	민간단체교류	관광교류	기술학술교류	기타
78(100)	25(32.1)	12(15.4)	9(11.5)	6(7.8)	5(6.4)	5(6.4)	3(3.8)	3(3.8)	2(2.6)	8(10.3)

검해 보고, 상호 간에 실익 추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별로 없었던 거 같다. 즉, 그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은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시 그 자체에 의의를 두었던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자체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지역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되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일본 측 자매도시인 두 도시—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福岡県 福岡市),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山口県 下関市)—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한·일 양국이 역사적·문화적·지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Ha & Okonogi, 2013), 최근에 조선통신사 자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공동 신청 노력,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사업,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2014년 현재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 시점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를 활용하였고, 부산-후쿠오카와 부산-시모노세키 간 등 국제문화교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있거나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통해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II.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의의

과거에는 문화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지방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한상우, 2006). 그러나 세계화, 지방자치제의 정착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는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통상교류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활용한 국제문화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에는 공공기관 간 문화교류를 넘어 민간단체나 개인 간에도 지역을 왕래하면서 특정 분야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교류의 한 유형이다. 국제교류의 유형화는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는데, 교류 분야별로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관광교류,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 기술·학술교류, 경제교류, 민간단체교류, 상징사업, 기타 등으로 분류하거나(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교류 주체와 성질에 따라 행정(행정·우호·회의·파견), 민간(민간·문화·스포츠·학생·기술·학술회의·체육 등), 경제(경제·관광홍보·농업 등) 교류로 분류하기도 한다(양기호, 2004:162~163).³⁾

한편,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은 “한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 상호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을 말한다(우양호·이정석, 2010에서 재인용). 이 정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매결연협정을 통해 자매도시가 되면 도시 상호 간 교류사업의 형태는 지자체가 상호 합의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교류사업의 형태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인적교류, 상징사업, 기타교류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이다(박금식, 2005; Bell-Souder & Bredel, 2005). 이 중에서 자매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교류는 양 주체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 상대 지역의 문화 척도나 가치 기준의 상이성을 서로 이해하며 나아가 양 시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박금식, 2005; 강창민, 20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3).

그렇다면 자매도시 간에 문화교류는 왜 필요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켜 가면 좋을 것인가. 국제문화교류는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통해 문화적 창조력을 제고시키고,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목표로 하므로(이준형, 2011),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정숙(2012)은 문화교류의 협의의 개념 정의를 통해 문화교류의 참여 주체별 목적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가 및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조적 자극을,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을 통해 문화적 발전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 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개념 정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서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별 역사 및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창출하고, 국가 간 정치적·외교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민간단체 간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문화교류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져 많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고, 상호 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 등 민간 차원의 교류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강창민, 2011).

국제문화교류의 참여주체는 다양하다. 정부(중앙·지방), 공공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

3) 기타 분류에 대해서는 이정석(2009; 2012)의 정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관 및 단체, 개별 예술가 및 전문가, 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대단히 넓다. 특정 장르에 한정될 필요도 없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쌍방향적 소통을 중요시하여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체재하면서 공동작업 및 창작활동을 한 다음, 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을 상호 교류하는 방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태도 내지 자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교관이자 문화사절단이라는 자세로 국제문화교류에 임할 때 비로소 문화교류 본연의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즉,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문화 간 상호 비교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독특성 내지 자주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세계의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기운이 형성되고 싹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발굴·양성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에서 본다면,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는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중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써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 기대효과와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 분야나 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지역활성화와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관계

1) 선행연구

지역발전⁴⁾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지역활성화라고 할 때(한표환, 1997), 그 추진방법은 시대·지역·추진주체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역활성화는 196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지역발전 혹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기초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이정석, 2009). 우리나라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지역 육성전략이 채택되었고,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촉진('80년대), 지역별 자율적 경제기반 구축('90년대 이후) 등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성근, 2006: 22). 지역활성화는 그 영향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집행하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기업, 단체,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종합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김성곤, 2000: 16).

지역활성화는 중앙집권 시대에는 외적 활성화(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공장·기간산업

4) 한표환(1997: 1)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연·문화·역사적 잠재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여 가시적 혹은 유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김용웅 외(2009)는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역발전'이라고 각각 정의하였다. 지역발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유치 등 외부요인을 끌어들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방화 시대에는 내적 활성화(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잠재자원 즉, 문화유산, 관광자원, 전통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정현, 2004). 결국, 오늘날 지역활성화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지역 차원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자 자발적인 노력을 동원하는 내부적 동기 및 요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서영진, 1994: 20~22; 이정석, 2012: 239). 첫째, 지역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해 내야 한다. 둘째, 지역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삶의 보람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경영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력, 인적·물적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화함으로써 매력적인 지역가꾸기를 추진하여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화 시대에 각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중앙 의존적인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을 동원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한표환, 1997).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 차원의 노력은 이제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⁵⁾ 또한, 교류 주체의 다양화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정석, 2009: 12).

바야흐로 ‘지방외교’ 혹은 ‘도시외교’의 시대이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교류(문화교류를 포함)가 실제로 지역발전 내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석(2009)에 따르면, 국제교류가 지역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도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Sister Cities International, 2016). 따라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 성과로서 도출된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활성화에 연계하고자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모색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문화교류와 지역활성화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는 한상우(2006), 신영근(2011), 한상정(20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선, 한상우(2006)는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 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일해협권 지역의 문화재를 통한 문화교류 확대는 양국 간 이해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재 전시, 인적교류, 학문적 교류 활성화, 한일해협권 공동네트워크 구성, 문화콘텐츠 연계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영근(2011)은 일본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축제·이벤트(문화)가 지역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두된 배경을 분석하고, 국제교류의 축제·이벤트 현황, 관광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국제화 현상, 새로운 축제·이벤트 창출 현상 등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특히, 쓰시마시는

5) 대표적인 예로, 2006년 발족한 ‘부산-후쿠오카 포럼’을 중심으로 양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고 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체 구상이 있다.

한국과의 자매결연 교류 활동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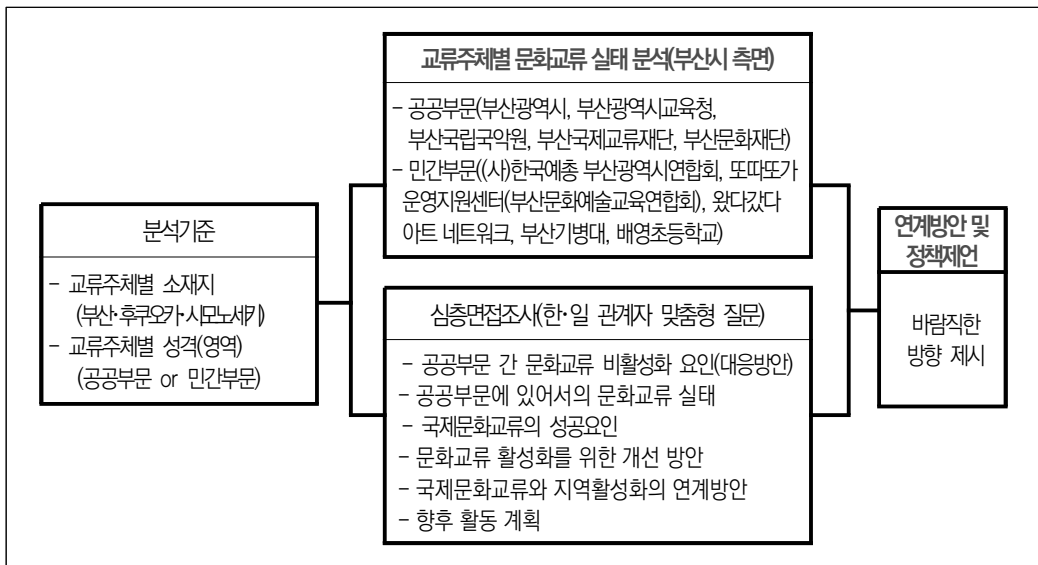
한상정(2013)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다. 양적·질적으로 안정된 규모의 축제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제고, 사회통합 효과, 타 축제와의 시너지효과 등의 성과가 나타나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의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의 중요성, 이해관계자들과의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전제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봤을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부산과 일본의 두 자매도시(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 간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역활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와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민했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석틀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와 지역활성화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실태분석 및 심층면접을 위한 분석기준 및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의 기관·단체 등 교류 주체별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를 통해 특징을 요약·정리하였다. 또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국제문화교류와 관련이 있는 한·일 13명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질문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추진상의 과제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와 지역활성화의 연계방안 및 정책적 제언(방향성 제시 포함)을 실시하였다.

Ⅲ. 부산과 일본 자매도시 간의 문화교류 실태 및 특징

1. 실태

현재 부산 지역에는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부산의 일본 측 자매도시 내지 기관·단체들과 여러 형태의 문화교류를 해 나가고 있다. 그 실태를 각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2015년 말 현재까지 일본의 2개 시(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둘째, 부산국제교류재단은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하여 크게 다섯 가지 부문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즉, ①민간 국제교류 지원, ②자매도시 인사 부산 초청 프로그램의 운영, ③자매도시 교류 행사 참여, ④시민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 ⑤「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개최 등이다(부산국제교류재단, 2011; 2012; 2013; 2014;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셋째,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를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해 조선통신사 축제 개최, 한일네트워크 사업 및 학술·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조선통신사역사관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부산문화재단, 2011; 2012; 2013; 2014).

넷째, (사)한국예총부산시연합회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경축하는 의미로 시작되었는데 매년 열리고 있다.

다섯째,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는 중앙동 일원 도심의 빈 사무실 등을 임대해 젊은 작가에게 안정된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3년간의 프로젝트인 「또따또가 사업」을 제안했는데, 부산광역시(정확히 표현하면, 부산문화재단에서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비 지원)가 연간 약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온 덕분에 국내·외 예술교류를 활발히 해 왔고, 2015년까지 2차 사업을 진행하였다(또따또가 홈페이지).

여섯째,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는 부산과 일본 규슈 지역의 예술기획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 대상 민간 예술교류행사인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WATAGATA Arts Festival)」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지역국가(Region State)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차재근, 2012), 예술기획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예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양 지역 문화의 교류가 지속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곱째, 기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국립국악원, 부산기병대, 초등학교 등도 일본 측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문화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다.

〈표 1〉 교류 주체별 문화교류 실태

교류 주체	문화교류 실태	
성격(영역)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2개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1976.10.11. 시모노세키시, 2007.2.2. 후쿠오카시) • 시모노세키시: 자매결연 이전부터 청소년·체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 전개.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 체결(1992.4.). 관광전·국제회의 공동 참가·직원연수단 방문, 양 도시 축제 참가, 조선통신사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 자매도시 체결 제35주년 기념식에 시모노세키시장 부산 방문(이벤트 행사 개최). 시모노세키시의 '부산문' 제막식에 부산시장 참석. 부산시 국제시장번영회와 그린물 상점가진흥조합 간 자매결연 조인식 체결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오카시: 관광전·국제회의의 공동 참가·직원연수단 방문, 양 도시 축제 참가, 조선통신사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 2009년에는 행정교류 20주년을 기념해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선언식. 초광역경쟁권 형성을 위한 노력. '아시안먼스 2009' 행사 기간에 조선통신사 우정의 축제와 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전개. 조선통신사 한·일 연고도시교류대회 개최(2010) -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하드웨어 정비(부산박물관 제2전시실 건립,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 	
부산국제교류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국제교류 자원(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 지원, 학교 및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중개사업, 민간단체 국제교류 경진대회) - 부산으로 찾아오는 국제교류 추진(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프로그램, 자매도시 국제교류 관계자 초청 부산 팸투어)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 교류 행사 참여 심화(후쿠오카 아시아태평양페스티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부산-후쿠오카 시모노세키 대학생 인턴십 상호교류, 부산-시모노세키 가이교 마라톤 대회 참가 및 문화탐방, 시모노세키 리틀부산 페스타 공연단 파견, 후쿠오카/시모노세키시 한국어말하기대회 지원 등의 활동) - 시민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시민·학생 인적교류, 사진전 교류, 공연단 교류) - 「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매년 개최 	
부산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통신사 업무 수탁(2010.4) 한일 문화교류 차원의 사업(조선통신사 축제, 한일 네트워크 사업, 학술·홍보 사업 등)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 운영 중인 조선통신사역사관(2011.4 개장) 홍보 강화 -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 다양한 문화콘텐츠 상품, 알찬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역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계획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예술제 개최 - 2009년부터 '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국제교류 예술제'로 진행 - 매년 '부산광역시 자매·우호도시 예술교류 심포지엄' 개최 → 자매도시 간 예술교류 방안을 논의하여 공연,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과 자매도시 간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또따또가운영 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 및 활동영역 확대 - 창작공간 네트워크,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등 국내·외 예술교류 - 2011년부터 후쿠오카의 예술기획가들과 함께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 -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와 연계해 레지던시 작품 활동이 가능하도록 또따또가 내에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민간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예술교류행사인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WATAGATA Arts Festival)」 매년 개최 - 2011년부터 실시해 온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상호 연결된 각국의 예술가들이 교류를 더 활발하게 이어나가도록 각종 예술 기획자들의 고민도 공유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예술활동 전개 	
민간		
기타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년 9월 후쿠오카교육위원회와 교육우호교류합의서에 조인. 학생 및 교사 초청 및 파견 사업 격년으로 실시 중 - 부산국립국악원: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2014.2.26.) 후 본격적인 지역 밀착 활동 선언.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다양한 한일 문화교류 공연을 기획 및 참여 기대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기병대」: 부산 유일의 요사코이팀으로 부산과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 전개. 부산기병대는 부산외국어팀 '오도리'와 함께 자매팀인 시모노세키 요사코이팀 「바칸기병대」와 교류하면서 한일 문화교류 추진 - 배영초등학교: 풍물패가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에 행렬 및 사물놀이 팀으로 참가하여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 부산예술단과 함께 공연

2. 특징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국제문화교류 실태를 살펴볼 때,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출연기관 등과 같은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및 동아리 등 민간부문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와 기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부산광역시(혹은 출연기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개별적인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재정지원을 통해 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고 있는데,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문화재단, (사)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민간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는 예술가·예술 기획자 간 국경을 초월한 국내·외 예술교류를 추진해 왔다. 부산기병대는 국내·외 예술 동아리 간 문화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넷째, 각 주체별 국제문화교류의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을 지역활성화에 연계시키기 위해 조직화하려는 눈에 띄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만큼이나, 각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협력적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IV.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본 심층면접조사는 부산광역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는 한 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류의 파트너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적 변수를 고려할 때 비로소 윈-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사에서는 연구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질문을 던져 연구목적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를 포함하여 일본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이해관계자들로, 총 13명이다(〈표 2〉 참조).

자료 수집은 피면접자 선정 후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목적 및 인터뷰 내용을 알린 후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이 일정에 따라 연구자가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정상

의 문제로 직접 면담이 불가능한 면담 대상자들은 전화 인터뷰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인에 대한 면담조사는 2014년 7월 14~18일까지 실시한 일본 방문조사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에 대한 면담조사는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약 2주간 직접 방문조사 또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분석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일양국의 교류주체의 성격별로 구분하였다.

〈표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국가(지역)	사례	면담자 이름	면담자 소속	성격(영역)
일본 (후쿠오카)	1	오츠카 요이치(大塚 洋一)	후쿠오카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국제계장	공공
	2	미야자키 신고(宮崎 真吾)	후쿠오카시 경제관광문화국 경제·콘텐츠부 국제경제계장	
	3	기무라 마코토(木村 誠)	하카다 전통 공예관 관장	
	4	라완차이쿤 도시코 (RAWANCHAIKUL 寿子)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학예원	
	5	김세일	배우, 연출가, 하나로프로젝트 기획가	민간
일본 (시모노세키)	6	다카노 슈이치(高野 修一)	시모노세키시 시민부 시민문화과 과장보좌	공공
	7	다나가 요이치(田中 洋一)	시모노세키시립 조후박물관 주임주사(학예원)	
	8	노무라 다다시(野村 忠司)	시모노세키시 문화협회 회장	민간
	9	하마사키 고이치(濱崎 康一)	바칸기헤이타이(馬関奇兵隊) 대표	
한국 (부산)	10	김희진	부산광역시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센터장	민간
	11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공공
	12	전미경	부산국제교류재단 팀장	
	13	김효정	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조선통신사역사관 홍보담당	

2. 심층면접조사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

1) 공공부문 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및 대응 방안

(1) 일본 공공부문

후쿠오카시와 시모노세키시의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대부분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꼽았다. 후쿠오카국제교류재단의 관계자는 시의 국제교류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도 한 요인으로 들었다. 즉, 한정된 예산 때문에 대외적인 국제교류 사업보다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모노세키시립 조후박물관의 관계자는 박물관의 조선통신사 관련 콘텐츠의 부족과 협소한 전시실, 시민 홍보의 어려움, 시내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측의 입장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양시 간의 문화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 한국 공공부문

부산국제교류재단의 관계자도 지방재정의 열악함 등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즉,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예산, 분위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서도 비예산 사업 중심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류를 통해 양쪽이 모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사례1(오츠카 요이치)
 -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제교류 확대는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음
 - 양시 간의 문화교류는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7(다나카 요이치)
 - 조후박물관은 전시관이 비좁고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도 적은 편이라 상설 전시 자체가 힘들. 또한, 시내로부터 박물관이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나쁜 점도 문화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민에게 조선통신사에 대해 알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방안으로는 초중 등학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과 요청이 있을 시에 박물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기획전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사례12(전미경)
 - 한국의 경우 국제교류 분야가 떠오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침체되고 있는 추세여서 양국 간에 온도차가 존재
 - 한국 측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예산, 분위기 등에서 열악하여 행정 측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받아줄 수 없는 형편
 - 교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기 전에 대응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일본 측의 경우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의견이 많음.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스템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함

2)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문화교류 실태

(1) 일본 공공부문

후쿠오카시는 부산과의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 중 문화교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분야」를 들었다. 그 이유로는 상호 인적교류 속에서 문화교류를 통해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시모노세키시는 한국과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 등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모노세키 3대 마쓰리의 하나인 「바칸마쓰리」 행사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일한 문화경연으로서 문화교류 공연을 실시하여 양시의 시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사례2(미야자키 신고)
 - 양시(후쿠오카-부산)가 「글로벌 인재육성 분야」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인적교류 속에서의 문화교류를 통해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해 나가는 토대로 삼기 위함

- 사례6(다카노 슈우이치)
 - 시모노세키시는 한국과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 등에 참가함과 동시에, 시모노세키 3대 마쓰리의 하나인 「바칸마쓰리」에 있어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통해 「선린우호(善隣友好)·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을 기초로 양시의 시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음
 -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 홍보지, 재단 정보지 등에 의한 홍보, 시내 각 대학, 고등학교 학생에게 행렬 참가의 의뢰 및 호소, 문화교류 공연의 포스터 게시 및 전단지과 부채의 배포, 문화교류 공연의 프로그램 배포, 문화교류 공연의 추첨회에 있어서의 물품협찬을 각 기업에 의뢰 등이 있음

3) 국제문화교류의 성공 요인

부산광역시와 일본의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교류주체별로 성공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1) 일본 공공부문

첫째, 후쿠오카(하카타) 관련 전통공예품을 소개하고 있는 하카타전통공예관의 문화교류 성공 요인으로는 한국 내 적절한 연계조직 확보 및 이벤트 공동 참여 방식 채택, 양호한 고객층 확보, 각별한 대우(VIP 대우, 단체장의 참석, 지역문화계의 호평)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아시아의 미술작품 전문 취급 미술관인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7: 44)의 경우, 2008년에 부산시립미술관과 협력관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2009·2010년에 상호 소장품 교환 및 인적교류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후쿠오카와 부산 작가들의 교류활동의 결과물을 소개함으로써 민간교류를 지원하고 촉진시키고 있는데, 양시가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를 서로 홍보하고, 상호 간에 관람권 우대 조치를 시행한 점이 문화교류의 성공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일본 민간부문

첫째, 요사코이 춤을 매개로 부산광역시의 ‘부산기병대(釜山奇兵隊)’ 등과 교류를 추진 중인 시모노세키시의 ‘바칸기헤이타이(馬関奇兵隊)’는 문화교류의 성공요인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8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문화교류에서 소중한 것으로 오픈마인드 견지, 네트워크 창출, 계속성, 참가자 간 공감대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하나로 프로젝트」는 한일 연극 교류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희곡 교환 공연」으로 정하고

진정성 있는 문화교류를 꿈꾸었다는 데서 성공요소를 찾을 수 있다. 즉, 희곡 교환 공연은 문화예술 차원의 새로운 도전인 셈인데, 협업작품을 만들면서 서로의 접점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3) 한국 공공부문

첫째, 2013년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문학 분야 교류가 처음 시도되어 문화교류의 폭이 확대되었다.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자매도시 간 문학교류가 최초로 시도된 것은 그 자체로서 성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즉, '화염의 탑'이 그 화제의 소설인데, 일본 나오키상 수상작이라는 점에서 한·일 간 첫 문학교류작품으로 손색이 없고, 작가의 저작권 기부라든가 독서토론회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된 점은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이다.

둘째, 조선통신사역사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이 일본인인 이유는 부산문화재단이 일본과 교류행사를 하면서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배포하거나 홍보부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관은 박물관과 달리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없지만, 조선통신사만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 방문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컸다.

(4) 한국 민간부문

첫째,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교류의 일상화를 달성함으로써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문화교류의 저력(상승효과)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한편, 조선통신사는 국제 레지던시의 효시로써 미래 세대에 전수하여 평화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또따또가」의 경우, 그 특이한 운영방식에 관심을 가진 후쿠오카의 예술가들이 파트너십을 제의해 온 결과 「WATAGATA 아트 페스티벌」의 탄생, 이 프로젝트 하나만을 집중 육성한 점, '문화 알리기'를 통한 창작공간 수호 노력 지속, 자비 입주 창작공간의 증가 등이 성공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 사례9(하마사키 고이치)

- 요사코이 춤을 추는 바칸기헤이타이의 교류 성공요인은 10가지로 요약됨. ①일본어로 교류 가능(소통), ②대학서클과도 교류 개시(계속성), ③젊은 세대 간 교류(일상화, 친구), ④양시 간 정기항로 개설(접근성, 지리적·시간적 이점), ⑤비예산 교류에 집중 노력(지출 최소화, 홈스테이 활용), ⑥민간 문화교류가 양국의 교류를 촉진(국제교류의 대의), ⑦국제교류란 1대 1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회원들의 공감대 형성), ⑧행정 의존의 수동형의 국제교류를 탈피해 독자적인 교류 채널 확보(반복적인 교류를 통해 독자 교류채널 확보), ⑨한국에 수용되기 쉬운 춤(부산시민이 즐겨 부르는 가요와 접목 용이), ⑩양시 간 직원교류(파견)제도 기시행(지원 창구 역할)
- 국제문화교류에서 소중한 것은 크게 2가지. ①계속성 유지(초기의 행정적 지원 중요. 시의 육성 의지 필요). ②교류 참가자에게 교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 사례3(기무라 마코토)

- 하카타전통공예관과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후쿠오카시·부산광역시 장인·관계자 교류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6가지. ①2014년도 「제10회 부산 국제 차와의 조화 문화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됨, ②양호한 고객층 확보(다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경우 그 문화적 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 ③부산공예협동조합과의 연계가 최적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됨, ④개회식에서의 인사나 개막식에서의 소개 등 사실상 VIP 대우를 받았음, ⑤부산광역시장의 관심 표명으로 행사의 격이 높아짐, ⑥부산지역 문화계 유력 인사로부터 좋은 평가(전통공예품의 수준 인정,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가능성 검토)

○ 사례4(라완차이쿰 도시코)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은 부산시립미술관과 소장품 교환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두 미술관에서 대규모의 특별 기획전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두었음

○ 사례11(차재근)

- 양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예술 창작활동을 하므로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시민들도 동참함
- 기록유산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중요한 가치인 평화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미래 세대에 전수하여 평화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 한일 양국이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례5(김세일)

- 하나로프로젝트는 부산-일본 간 희극 교환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동아시아권 예술단체와의 연극 교류 프로젝트로, 2003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후쿠오카에서 해외공연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 데서 출발했음
- 처음에는 부산과 후쿠오카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음. 처음에 소개시켜 주고 나면 관심이 붙어서 어느 순간에 실제로 하고 있고, 5~6단체로 늘어나게 되면서 공동 제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같이 해보자는 식으로 제안하게 됨

○ 사례10(김희진)

- 우선 「왔다갔다 프로젝트」 하나라도 제대로 키울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분야로의 확장은 못하고 있음. 관이나 교류재단의 도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큼
- ‘문화 알박기’(중구 중앙동 일대 요소마다 건물을 매입해 대규모 개발을 사전에 막고 원도심의 문화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를 통해 이 지역의 분위기를 지킬 때까지 지켜보자는 취지
- 또따또가에 입주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예술가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특징

○ 사례13(김효정)

- 조선통신사역사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인임
- 역사관은 조선통신사만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 방문객들의 경우 아이들이 즐기고 학습하는 공간인 역사관에 대해 많이 부러워하고 있음

4)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일본 공공부문

첫째, 부산시립미술관이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과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려면 후쿠오카시미술관·후쿠오카시박물관·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이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하카타전통공예관 측은 부산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당일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주문 매상이 약 300만 엔이나 됐을 때, 향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하였다.

셋째, 시모노세키시가 부산의 조선통신사 교류단에 버금가는 정도로 대응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부산의 경우 메세나가 강한 편이지만 시모노세키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2) 일본 민간부문

시모노세키시 문화협회 회장은 부산 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에 탄복할 정도라고 했다. 상호호혜적인 측면에서 방문단에 대한 지원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시 규모에 따른 인프라의 차이가 큰 것도 지적했다.

(3) 한국 공공부문

첫째, 조선통신사역사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객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사업을 달리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부산시민과 일본의 자매도시 시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적인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일본에서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었지만 점차 줄어들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역사관의 홍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관 주변에 이정표나 안내표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역사관뿐만 아니라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관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4) 한국 민간부문

또따또가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도심 지역에 블록 단위의 큰 개발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부산의 16개 구·군의 경우 자기만의 환경적 특징이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 맞는 또따또가 형태의 기회들을 필요로 한다. 다만 서두르지 말자는 차원에서 문화 원천자원들에 대한 조사를 더 하고, 기존에 장기 거주하였거나 상업을 하거나 생계활동을 한 사람들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사례4(라완차이쿤 도시코)
 -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서는 상호의 소장품을 교환전시하는 큰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부산시립미술관측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이에 부산시립미술관과의 문화교류를 후쿠오카시미술관·후쿠오카시박물관·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의 3개 관에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사례3(기무라 마코토)
 - 부산광역시공예협동조합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향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례8(노무라 다다시)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라고 생각. 부산의 경우 메세나와 같은 기업 응원이 굉장한데, 시모노세키시의 경우 거기에는 못 미치는 형국
 -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부산의 시모노세키시 교류단에 대한 대접과 시모노세키시의 부산광역시 교류단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격차가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 역시 예산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 규모에 따른 인프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음
- 사례13(김효정)
 - 역사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사업을 달리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역사관의 홍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음. 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역사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협조해 주기를 바람
 - 개관한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면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관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시급함
- 사례10(김희진)
 - 제가 꿈꾸는 것은 문화 알박기랑 비슷한 사항인데 프랜차이즈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블록 단위의 큰 개발이 안 이루어졌으면 함.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 부산의 16개 구·군의 경우 각각 구군별 특징에 맞는 또따또가 형태의 기회를 필요로 함

5) 국제문화교류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방안

(1) 일본 민간부문

시모노세키시의 바칸기헤이타이의 활동과 같은 문화교류는 기본적으로 돈벌이가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지만, 이벤트 하나를 잘 만든다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10년 간 상호교류를 계속하면 하나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고, 그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지역활성화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간단체의 문화교류 활동이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한국 민간부문

또따또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광역시가 지원은 하되 작가들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

는 「팔길이 원칙」을 잘 지킨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시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는데, 입주작가들은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또따또가를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었다. 한편, 입주작가들이 ‘또각또각’ 프로그램(입주작가들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일반인 대상 창작공간 방문 체험 및 설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는 「왔다갔다 프로젝트」이다. 이것을 통해 문화적인 체험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관계자는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의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긍정적인 기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활성화에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다.

○ 사례9(하마사키 고이치)

-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단원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지역활성화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전망

○ 사례10(김희진)

- 또따또가가 짧은 시간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팔길이 원칙」(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을 지킨 덕분임. 이러한 원칙이 또따또가를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었음
- 「왔다갔다 프로젝트」가 국제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은 분명. 문화적인 체험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음. 특히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의 재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긍정적인 기억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것이 지역활성화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6) 향후 활동 계획

(1) 일본 공공부문

후쿠오카시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인 2015년에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일본 민간부문

바칸기헤이타이는 2014년부터 요사코이를 통한 일한 문화교류의 꿈을 실천 중에 있다. 다음 목표는 “일한 요사코이 축제 in 부산”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산에도 부산기병대와 부산외대 동아리 ‘오도리’ 팀이 있고, 일본의 새로운 예능문화의 한 장르로써 요사코이를 통한 젊은이끼리의 교류의 가능성을 향후에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내 여러 도시의 요사코이 네트워크도 잘 정비되어 있고, 예산 문제만 해결해 낼 수 있다면, 부산에서의 일한 요사코이 축제 개최는 빨리 실현될 수 있고, 향후 젊은이들의 국제문화교류에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 한국 민간부문

또따또가의 경우 상징적 본부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렵게 만든 만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는데, 「팔길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따또가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향후 더 많은 작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3명뿐인 상근 인력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 사례1(오츠카 요이치)

-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이것을 기념하여 부산·후쿠오카 공동의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아트나 댄스 분야에서도 일반인을 포함시켜 한일 양국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를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사례9(하마사키 고이치)

- 2014년부터 요사코이를 통한 일한 문화교류의 꿈을 실천 중으로, 다음 목표는 “일한 요사코이 축제 in 부산”의 개최
 - 부산에도 부산기병대와 부산외대 팀이 있고, 일본의 새로운 예능문화의 한 장르로서 요사코이를 통한 젊은이끼리의 교류의 가능성을 향후에도 모색해 나갈 계획

○ 사례10(김희진)

- 상징적 본부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건의했으나 아직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팔길이 원칙」을 지킨 것이 현재의 또따또가를 낳았다고 생각. 또따또가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지원이 절실함

V.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와의 연계 전략

1.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의 기본전제 확립

국제교류는 세계라고 하는 무한경쟁의 무대 위에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자들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석, 2009). 따라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정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석(2009: 2012)은 국제교류 활성화의 6가지의 원칙(준비성, 차별성, 지역마케팅, 자율성, 다양성, 실용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되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결부시켜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활성화를 염두에 둔 문화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간의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는 ‘친선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으나, 실리 추구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경우 지역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때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국

제교류는 자매도시결연 등 특정 분야에 편협하지 않고, 다방면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킬 목적이라면, 성공사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 전체에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셋째, 주민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양자를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까지 포함한 3자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과정에서 협업해 가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정석, 2009). 민관협력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파트너십, 그리고 역할분담에 있다. 또한, 민간부문 간 교류는 정부 간 교류와는 달리, 정치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넷째,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자매도시 당국은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료시설 등을 할인요금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대방이 우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우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한쪽에게만 이익을 주는 편향적인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마케팅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방문객이 다시 찾는 만족도 높은 지역이 되려면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전체 자산가치(브랜드 가치 포함)를 높이고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에 의한 공동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전략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섯 가지의 기본전제들을 감안하면서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전략을 강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자매도시의 현실을 감안한 문화교류의 방향 설정이다. 부산이 일본 자매도시와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에 대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고 각계로부터의 요청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후쿠오카시와 시모노세키시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 등의 이유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업의 초점을 내향적 국제화에 맞추고 있고, 비예산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비예산 사업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부문 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사례의 발전 강화이다. 지금까지 부산과 일본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현상을 고찰해 볼 때,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사업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조선통신사 국제교류사업과 또따또가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 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적절하게 묶어 세 지역을(가칭)「평화교류지대」로 마케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통신사의 위상 재정립, 초량왜관 복원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유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 또따또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추가적인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가칭)「평화교류 카드」의 활성화이다. 시민체감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One Asia Pass’⁶⁾와 같이, 부산광역시는 시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쌍방 간에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공연료 할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일 양 도시의 미술관 간 협력관계 구축, 행사 공동홍보 등에서 문화교류의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가칭)「평화교류지대」내의 특정 유료 시설 이용 시 (가칭)「평화교류 카드」를 제시하면 방문객에게 요금할인이나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요금 혜택을 얻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도시들은 방문객 수의 증대로 인해 지역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주민참가 확대를 위한 문화교류 행사의 홍보 강화이다. 국제문화교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류를 통해 학습하고 전수하는 과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교류는 온전한 국제교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기업 등 메세나 방식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유튜브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실제 문화교류 행사의 활동상들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문사 등 언론사의 특집기사들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참여를 확대하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확인 및 마인드 제고이다. 시장 등의 공약을 의지대로 실천하고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것은 부산광역시 관계 부서와 유관 실시기관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지역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문화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문화교류 활성화

6) 서울시, 도쿄, 자카르타, 델리, 타이베이, 후쿠오카 간 시민체감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 교류를 통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가 도시 시민들은 쿠폰만 제시하면 총 500여개 업체 5~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고, 상대도시 시민은 서울 50여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형식적 자매도시를 넘어 시민에게 도움되는 실질적 교류 확대의 취지로 출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서울 중소규모 문화·관광시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

는 물론 지역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시장은 강한 공약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고, 수시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무원 등이 일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팔길이 원칙’에 따른 문화교류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의 유지, ‘일한 요사코이 축제 in 부산’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구상 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성과를 지역활성화에 연계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부산-일본 자매도시 간 교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영사관은 매년 「일한문화교류 행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영사관이 주최·후원하는 행사와 홍보지원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다.⁷⁾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 등은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영사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기획한다든가, 홍보지원 사업이 필요할 경우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문화교류 활동 중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것은 약간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이벤트로 창출해 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국제교류의 주체는 결코 국가일 수 없다.⁸⁾ 글로컬리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의 국제문화교류의 주역은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이며, 지역주민도 가능하다. 그만큼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생각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공공과 민간, 단체와 개인 등 각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등에 관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7) 예를 들어, 2014년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최 행사로는 「제8회 스시(壽司) 만들기 체험회」, 「일본 문화 전시회」, 「일본인형만들기 워크숍」, 「제11회 일본가요대회」, 「제14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대회」, 「제2회 중고교생 일본퀴즈대회」, 「제2회 중고교생 일본퀴즈대회」등이 있다. 후원 행사로는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 모임 2014」, 「제11회 전국 일본어 프레젠테이션 및 말하기대회」, 「국제포토그라피 인 부산 2014」, 「2014 JLPT 일본어능력시험(연 2회)」, 「한국 관광 프로모션」, 「제8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말하기대회」, 「2014 하계 일본어캠프」, 「제2회 일한중 아동 우호 그림전」, 「제2회 부산 중고교생 일본가요 경연대회」 등이 있다. 홍보 지원 사업으로는 「제1회 한일 신인 연주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 콘서트」, 「제24회 국제서화예술전」 등이 있다. 그리고 2015년의 행사는 2014년의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8) 부산문화재단의 차재근 실장은 “균형 잡힌 문화교류의 한 방편이 ‘로컬 투 로컬(L·T·L)’이 아닐까 한다. 목적하지 않았지만 L·T·L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GLOCAL이 소중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지역 등 국가가 직접 나선 국제교류는 촛 빨 나는 일이다”(차재근, 2012)며, 문화교류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그간 문화교류 관련 하드웨어의 확충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 왔고, 문화예술단체 등과 공동으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은 창조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교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또따또가」가 지켜왔던 원칙이었던 ‘팔길이 원칙’이 문화교류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과 일본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에 대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앞으로 문화교류의 방향 설정 시에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일본의 자매도시가 교류의 물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가급적 현행 수준의 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민간 교류단체 간 교류희망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좀처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는 한일 외교관계와는 달리,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비롯하여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민간 예술단체들의 노력은 지방외교의 승리다. 따라서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에 있어서 정치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반(反) 한류와 혐(嫌) 한류(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해서)가 싹 트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조선통신사 유물의 수집 및 발굴과 복원작업은 물론 연구 성과의 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산은 조선통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왜관이 있었던 다문화 도시였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이다.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을 갖는 부산과 후쿠오카시 및 시모노세키시 간의 문화교류는 그 가능성이 무한하다. 따라서 향후 문화교류 활성화의 한 방향으로서 해양문학과 해양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산시 사례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의 지자체에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자매도시 간 교류가 행정교류의 한계—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류로 변질—를 극복하고, 교류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되,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의 추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어디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시의 측면에서 일본측 자매도시와의 국제문화교류 실태를 파악했다는 점 때문에, 후쿠오카시와 시모노세키시의 입장에서 기술하지 못했다. 또한, 전국적인 현황과 비교한 부산시의 실태를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심층인터뷰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기술과 종합방법론의 적용을 하지 못했다. 이는 한·일 세 도시에 거주하는 13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류주체별 맞춤형 질문을 통해 필요사항들을 조사해야 했고, 일본측 관계자들을 재차 조사하는 것은 원격지에 거주하는 특성상 쉽지 않아 주관적인 서술에 그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독자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창민. (2011). 「국제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본연구 2011-26.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김성곤. (2000). 「지방정부의 농촌지역 복지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9. 「신지역발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정현. (2004).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Identity 및 이미지 인식 실태와 과제. 「2004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금식. (2005). 「부산시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정책연구 05-4.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1). 「부산국제교류재단 2010 활동성과」.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2). 「부산국제교류재단 2011 활동성과」.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3). 「부산국제교류재단 2012 활동성과」.
- 부산국제교류재단. (2014). 「부산국제교류재단 2013 활동성과」.
- 부산문화재단. (2011). 「2010 부산문화재단 실적보고서: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문화」.
- 부산문화재단. (2012). 「2011 부산문화재단 실적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2013). 「2012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부산문화재단. (2014). 「2013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부산문화재단(조선통신사역사관). (2014). 「조선통신사역사관 브로슈어」.
- 서영진. (1994).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서울: 나남출판.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One Asia Pass' 해외도시 500여개 문화관광시설 최고 50% 할인, 「보도자료」, 7.8.
- 신영근. (2011). 일본 큐슈(九州)지역의 국제교류를 이용한 지역활성화정책의 원인과 현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4): 603-615.
- 양기호. (2004).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평가와 분석모형. 「지방의 국제화」(지방자치단체교류국제화재단 1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2.
- 이성근. (2006).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 「지방행정」, 55(627): 22-28.
- 이정석. (2009). 「경남도와 한일해협 연안 현(縣) 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기본연구 2009-1.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 이정석. (2012). 국제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방안: 경남도와 대한해협연안 현안 사례연구. 「한국행정논집」, 24(1): 235-259.
- 이정석. (2014).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부산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해협권연구」, 14: 43-89.
- 이준형. (2011).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정정숙.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기본연구 2012-35.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차재근. (2012). [칼럼]로컬 투 로컬(Local to Local)을 통한 국제교류 패러다임. 「사하문화사랑방 카페」(<http://cafe.daum.net/westarts>). 11.8.
- 한상우. (2006). 「한일해협권 지역의 문화교류 증진방안: 문화재 관련 교류콘텐츠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6-16. 창원: 경남발전연구원.
- 한상정. (2013). 국제만화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선제조건들: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축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83: 441-457.
- 한표환. (1997).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뉴시스」. (2013). 부산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26번째 '자매결연'. 1.11.
- 또따또가 홈페이지(<http://www.tttg.kr/xe>)(검색일: 2014.8.2.).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산소개>부산의 현재와 미래>국제교류>자매도시현황
(http://www.busan.go.kr/Page.bs?parcode=MNU_00000014800&prgcode=CMS_00000014800)(검색일: 2016.1.31.).
-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http://www.bfia.or.kr/contents/a3_popup.asp)(검색일: 2014.8.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exchange.gaok.or.kr/exchange/list.action?relationType=101>)(검색일: 2014.8.10.).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busan.kr.emb-japan.go.jp/n2014.html>)(검색일: 2014. 8. 25.).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busan.kr.emb-japan.go.jp/jhtm/new2015event.html#1>)(검색일: 2016.3.2.).
-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7). Report on the Research Project Exploring Kyushu's External Relations and its Asian Strategy.
- Bell-Souder, Donald & Bredel, Shanna. (2005), A Study of Sister City Relations
(<http://www.colorado.edu/ealc/sisterstudies/report.pdf>)(검색일: 2015.12.20).
- Sister Cities International. (2016). Measures That Matter: A study on the economic benefits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in the U.S. and their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2014-2015(<http://sistercities.org/sites/default/files/Measures%20that%20Matter.pdf>)(검색일: 2016.1.28).
- Yu Jose, Lydia N. (2004). The Rise and Fall(?) of Sister-Cities in Philippines-Japan Relations
(<http://publications.nichibun.ac.jp/region/d/NSH/series/symp/2010-03-30/s001/s010/pdf/article.pdf>)(검색일: 2015.12.2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3). Diplomatic Bluebook 2003.
- Ha, Young-Sun & Okonogi, Masao. (2013), A New Era for Korea-Japan Relations: Seven Tasks for Bilateral Cooperation, Second Term Joint Research Project for a New Era for Korea-Japan Relations.

이정석(李政碩): 일본 도호쿠(東北)대학(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台市) 소재) 법학연구과에서 2006년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한·일 대도시권 거버넌스의 연구: 대도시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도시권 내 지방정부의 재편과 관련해서)를 취득하고, 경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 연구위원(행복생활권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방자치행정(거버넌스), 교육자치, 공공정책, 비교행정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2015), “외국인주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2014, 공저), 공직자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영향 요인 탐색(2014, 공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모형 제안: ‘지역적 일체성 권역’ 개념의 활용”(2013), “지방정부 글로벌 교육경쟁력의 영향요인과 재정 지원 방안”(2013), 「지방자치와 지역발전」(2012, 공저), 「창조적 발상과 지역경쟁력」(2008, 공저) 등이 있다(jslee@bdi.re.kr)

Abstract

Activat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Sister Cities and Linking it with Regional Revitalization: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in Japan

Lee, Jeong-Seok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hods of activat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in Japan and linking it with regional revit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t up a certain fundamental prerequisites. Those are cultural exchanges that keep regional revitalization in mind, applying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ducing residents to participate positively, returning the profit to the residents, observing a reciprocal principle,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regional marketing.

On the basis of above mentioned six fundamental prerequisites, six concrete practical strategies are suggested. First, the direction of cultural exchange must be set up with taking the circumstances of sister cities in Japan into consideration. Second, it is needed to develop and reinforce the successful cases by applying the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nd it's going to take much more than building friendships to do that such as reestablishing the status of Joseon Tongsinisa, creating synergy effect by connecting with Choryang Waegwan restoration project, making a utmost effort to be listed jointly on th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strengthening support to the TOTATOGA, and finding the additional cases. Third, revitalization of tentatively named "Peace Exchange Card" is needed. Fourth, Promotion of the cultural exchange ev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community participation. Fifth,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should show will of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raise his mind. In addition to that, other methods can be considered: Consulate-General of Japan at Busan needs to do a role for cultural exchange. And Busan Metropolitan City and Busan Cultural Foundation support that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with growth potential led by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a new event.

Key Words: cultural exchanges, regional revitalization, methods of linking, Busan Metropolitan City, sister cities